

18세기 한일문화 교류의 양상

- 江關筆談을 중심으로 -

김 태 준*

- I. 머리말
- II. <江關筆談> 두개의 異本
 - 1. 체제와 내용
 - 2. 任守幹 본의 서문
- III. 18세기 한일 외교문화의 양상
 - 1. 일본 외교의 두 주역 ① - 新井白石
 - 2. 일본 외교의 두 주역 ② - 雨森東
 - 3. 정치적 대립과 문화적 交歡
- IV. 서양인식과 중화주의의 위기
- V. 한일 교류사에 대한 공동관심
- VI. 18세기 통신사의 세계인식과 동시대의 연행사
- VII. 문학적 자국주의의 허상과 실상

I. 머 리 말

임진왜란 이후의 한일관계는 12번에 걸친 조선통신사절의 일본파견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편리하다. 18세기에 들어서는 1711年(辛卯)·1719年(己亥)·1748年(戊辰)과 1764年(甲申)등 네차례의 통신사절이 일본에 오갔다. 이 시대는 세계적으로 외국여행이 잦아졌고, 이 여행의 체험들은 이 시대를 변혁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18세기의 시대상황 속에서 한일 교류의 양상도 그 모습을 달리했다. 이 변모하는 18세기의 시대상황 속에서 한일교류의 양상을 특히 통신사의 《江關筆談》을 중심으로 살피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임진란 이후 조선과 일본이 다시 送使 조약을 맺은 것은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넘는 광해 원년(1609)의 일이다. 이로써 한일교류사상 가장 불행했던 임진왜란의 상처를 딛고, 전쟁의 뒷마무리를 짓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적개심은 이를 달랠 길이 없었다. 그러나 국교의 재개는 일본 쪽의 성화만이 아니고, 조선의 안보를 확인받는 뜻에서도 공통의 관심사였다. 일본이 조선과 국교를 회복하는 일은 대마도의 경제적 사활의 문제였고, 신흥 덕천 막부의 정권유지를 위한 대외적 보장책이기도 했다. 이에 조선으로서도 국교를 요청하는 정식 국서를 보낼 것과 전쟁 포로의 송환, 전쟁중 왕릉 발굴범의 인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일본의 요

* 東國大 日文科 教授

구에 응하게 되었다. 조선은 일본이 국서를 먼저 보내게 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포로의 송환과 왕릉 도굴범의 인수로 대의명분을 찾았다 [姜周鎭: 海行總載 해제 참조].

이렇게 다시 회복된 한일 국교의 주역들은 조선 통신사절이었고, 이들의 일기가 해행문학을 이루고 있다. 17세기에 일본을 오간 7번의 통신사절에 이어, 18세기 첫번째 사절이 趙泰億 일행이었다. 이 辛卯 사절의 외교와 한일 교류의 모습은 부사 任守幹의 《東槎日記》와 押物通事 金顯門의 《東槎錄》 등에 자세히 다. 그중에도 특히 일본측 외교의 담당 주역이었던 新井白石과의 교류의 모습을 가장 잘 전해주는 기록으로는 《江關筆談》이 흥미롭다. 이것은 조선사절과 白石이 하룻동안 필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부사 임수간 이름으로 된 사본과 조태억 편집 사본의 두 가지가 전한다. 열서너쪽에 지나지 않는 짧은 글이지만, 그때 한일 외교의 주역들의 생각과 교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필자는 《강관필담》을 중심한 한일교류의 양상을 살피는 방법으로 우선 이 필담의 자료를 검토하고, 특히 두가지 異本의 차이에서 발견되는 한일 교류의 미학에 주의하고자 한다. 이 자료의 검토 가운데서 일본 외교의 두 주역이었던 新井白石과 雨森東의 인물에 주의하고, 정치적 대립과 문화적 교환이라는 외교문화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또 이들 두나라 외교관들의 필담 속에 두드러진 서양인식의 확대와 함께, 중화주의의 위기도 함께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중화문명과 서양의 물결 사이에서 변화를 겪는 한일 두 나라의 새로운 체험이 발견되리라 믿는다.

18세기 조선 통신사의 세계인식의 한계는 서양을 직접 체험했던 일본 쪽 新井白石과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들어난다. 이것은 같은 시대 중국을 여행한 연행사들의 경우와 삼자를 비교하면 좀 더 뚜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新井白石은 서양체험과 지리개념의 확대로 근대적 역사 의식의 놀라운 자각을 보인 지식인이었다. 이런 자각된 역사의식은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는 실학적 사고를 키워주었고, 외교에 있어서 또한 능동적 수완을 휘두를 수 있게 했다. 이런 자각된 세계인식 역사의식은 오히려 같은 시대 중국을 여행한 실학파들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론에서 新井白石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강관필담》 자체가 그의 화제에 크게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사절의 여러 문인이 白石 한 사람과 주로 필담했다는 이유 밖에도, 이 외교에 있어 白石의 활동이 두드러진데도 이유가 있다. 자국주의의 경향은 나라들 사이의 교류에서 피할 수 없다 하겠으나, 문학인들의 교류에 보이는 문학적 자국주의의 실상과 허상 또한 지나쳐 버릴 수 없는 화제라 생각한다.

II. 《江關筆談》 두 개의 異本

1. 체재와 내용

《江關筆談》은 지금껏 두 개의 異本이 전한다. 1711年 辛卯 조선 통신사와 일본 문인 정치가 新井白石의 필담을 내용으로 하면서도, 정리자에 따라 두개의 이본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통신 부사였던 任守幹의 《東槎日記》의 坤편 앞머리에 실려 전하고, 다른 하나는 정사 趙泰億의 이름과 함께 《新井白石全集》 등에 전한다.

임수간의 《江關筆談》은 그 자신의 통신사 일기 속에 들어있을 뿐이 아니고, 여기에 간단한 서문을 붙여서 이를 정리한 때와 장소와 내력을 뚜렷이 밝히고 있다. 때는 임진년(1712) 중춘, 귀국길에 下關에서 풍랑을 만난 일과, 이때 무료함을 달래면서 이 글을 썼다는 것이다. 그리고 風本館에 머물면서 靑坪居士〔任守幹〕가 썼다는 서명도 뚜렷이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조태억이 정리했다는 《江關筆談》은 임수간의 서문은 없고, 다만 ‘通政大夫吏曹參議知製教趙泰億輯’이란 서명만이 들어있다. 이것은 白石이 신묘 조선통신사 접대의 내력을 기록한 230여쪽의 외교문서의 맨 뒤에 부록되어 있다. 이 외교문서에는 〈朝鮮聘禮事〉를 비롯하여, 〈朝鮮信使進見儀注〉〈朝鮮信使饗儀注〉〈朝鮮信使辭見儀注〉와 그밖에 조선 사신 접대의 자세한 논의가 정리되어 있다. 이밖에도 白石이 燕樂을 즐기며 조선 사절과 더불어 필담한 《坐間筆語》가 《江關筆談》과 나란히 실려 전한다. 이렇게 《江關筆談》은 같은 필담 내용을 두 사람이 각각 정리하여, 두개의 이본으로 전한 셈이다.

두개의 이본은 다같이 신묘년 11월 5일의 필담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그체재와 내용에서 다른 점이 적지 않다. 임수간의 《강관필담》은 11월 5일의 이 필담 앞에 간단한 서문을 붙이고, 맨 끝에는 23일에 받은 白石의 전별의 글을 부록하고 있다. 말하자면 3부형식의 체재로 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서 조태억이 정리했다는 이본에는 본문에 해당하는 11월 5일의 필담 내용만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필담 내용을 비교하더라도 서로 드러나지 않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아래에 중요한 화제를 비교해 보이기로 한다.

任 守 幹 本	趙 泰 億 本
1. 新井白石이 조선사신을 館으로 예방함.	1. 같음.
2. 정사 平泉이 필담을 제의함.	2. 같음.
3. 白石이 정사와 담배피우지 않는 이유를 문답함.	3. (없음. (白石의 〈坐間筆談〉에 나옴)

- | | |
|--|---------------------------------------|
| 4. 종사관·부사·白石 사이에 중국 古書의 보관을 논함. | 4. 같음. |
| 5. 중국 古書를 보여줄 수 없다는 대답을 논함. | 5. 같음. (순서 바뀜) |
| 6. (없음) | 6. 白石이 중국의 예를 들어 책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를 강조함. |
| 7. 白石이 西洋 각국 사신과 만난 사실을 자랑함. | 7. 같음. |
| 8. 萬國全圖의 있고 없음과, 서양나라들의 위치에 대해 문답함. | 8. 같음. |
| 9. (없음) | 9. 白石이 萬國全圖에 대해 설명함. |
| 10. 조선 부사가 琉球·중국등과의 왕래를 묻고 문답함. | 10. 같음. |
| 11. 조선부사가 마테오 리치에 대해 물음. | 11. 같음. |
| 12. 종사관이 琉球의 복식과 문자 제도를 물음. | 12. 같음. (이 부분 趙本이 훨씬 자세함) |
| 13. 白石이 조선의 복식제도를 묻고, 이쪽은 일본의 문교가 부흥함을 칭찬함. | 13. 같음. (이 부분 趙本이 훨씬 자세함) |
| 14. 조선 부사가 일본의 武藝를 칭찬 일로 부터 서로의 선린을 논함. | 14. 같음. |
| 15. 조선정사가 일본의 諱하는 법을 묻고, 白石이 일본의 문자와 언어를 논함. | 15. 같음. |
| 16. 정사가 일본국서를 정서하기 전에 보여 주도록 청함. | 16. 같음. |
| 17. 일본의 관혼상제가《朱文公家禮》에 따르는가를 물음. | 17. 같음. (이 부분 趙本이 자세함) |
| 18. 白石이 다시 담배를 권하고 서로 號를 빗대어 여러 쪽에 달하는 긴 농담을 즐김. | 18. (없음) |
| 19. 제술관과 세명의 서기가 들어옴. | 19. 같음. |
| 20. 이어서 다시 농담을 벌임. | 20. (없음) |

- | | |
|--|---|
| 21. 白石이 제술관과 서기들의 나이와 벼슬을 물음. | 21. 같음. (아주 간략함) |
| 22. 鄭夢周의 후손인 정서기와 포은에 대한 이야기. | 22. (순서 바뀌고 내용 다름 [→ 25]) |
| 23. 雨森東이 들어오고, 그에 대한 화제가 이어짐. | 23. (없음) |
| 24. (순서 바뀌고 내용 다름) | 24. 조선 서기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짐. |
| 25. 이날의 사감을 서로 아까와 하고, 白石이 오늘의 필담을 훗날 보내주도록 부탁함. | 25. 같음. (白石의 인사 중에 역대 조선 사신의 이름과 이번 사신의 家系를 들어 경사라 함) |

이로 볼 때, 임수간 본은 사실에 충실하려 했다고 보이며, 조태억 본은 白石의 화제에 중점을 두고 정중한 표현에 힘썼다고 보인다. 조태억 본은 雨森東의 이야기를 이곳에서 뺐고, 담배피우는 이야기와 같은 일체의 농담조는 하나도 실지 않았다.

일본쪽 보고에 따르면, 內藤虎次郎이 1913년에 서울에서 개인소장의 조태억 편 <<강관필담>>을 보았다고 한다. 조태억의 집안에서 나온 것에 틀림없으리라고 하는 이원본은 그 일부가 白石의 자필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로보면 조태억이 펴낸 <<강관필담>>이 뒤에 白石全集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며 [宮崎道生: 白石と 朝鮮使節, 《新井白石の時代と世界》, 吉川弘文館], 혹은 이 과정에서 백석의 손이 보태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 필담의 마지막에는 백석이 이날의 필담 사본을 훗날 자기에게도 보내주도록 청한 부탁의 말이 실려 있다. 이 부탁에 따라 조태억의 편집 사본이 白石全集에 실리게 되었을 것이나, 조태억의 처음 정리본과 얼마큼 달라졌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다.

2. 任守幹 본의 서문

임수간 본은 조태억 본에 없는 간단한 서문이 붙어있다. 이것은 靑坪居士의 이름으로 임진년(1712) 중춘에 下關의 風本館에서 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이 <<강관필담>>이 임수간의 글인 점과 그 지은 연대며 장소를 알게 한다. 또한 雨森東의 소개로 白石詩集을 대하게 된 인연과, 白石과의 필담을 정리하게 된 내력을 함께 전한다.

이 짧은 서문에서는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모두 이바지해 주고 있다. 곧 일본의 18세기의 한일교류를 대표할 수 있는 新井白石과 雨森東의 인물이며, 또 한일간의 문학적, 외교적 교류의 모습이 잘 소개되고 있다. 일본의 寄閣大臣인 新井白石의 능동적 외교의 수완이 뚜렷이 보이고, 그들의 대담을 통한 세계인식의 실상을 엿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이 서문은 특히 이 필담이 新井白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뚜렷이 보여 준다. 그것은 대마도 서기 雨森東이 사신들에게 白石詩集을 가지고 왔다는 데서 화제를 시작하고, 白石의 인물을 소개하는데서 끝내고 있다. 이 것은 본문에서 더욱 잘 확인되는 점이다. 본문은 白石이 조선 사신의 관사를 찾아온데서 시작해서 그와 조선 사신들과의 필담을 다루고 있다. 이쪽에서는 정사와 부사, 종사관과 세명의 서기가 참여하고, 저쪽은 白石이 주인이었다. 연행록과도 달라서, 이처럼 일본 문인이 중심이 된 글은 다른 통신사의 기록에도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그만큼 白石은 당시 조선 사신들에게도 관심의 표적이 된 인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서문은 필담하던 때의 교류의 분위기를 훌륭히 전해주는 글이다. 특히 “간혹 농담을 섞어 웃기도 한 것이 하루에 무릇 수십 백장”이 되었으며, 그 중에 “이따금 권할만한 것”이 있었다. 이런 지적은 임수간의 <<강관필담>>의 성격을 스스로 지적하는 말이기도 하다. 과연 임수간의 <<강관필담>>은 조태역의 그것처럼 엄숙하지는 않다. 거기에는 간혹 농담을 섞어 웃었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기도 하고, 고대중국의 복잡한 예의를 논하는 것과 같은 부분도 빼고 있다. 임수간이 이런 분위기를 “이따금 전할만한 것” 속에 포함시켜 기록한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통신사 일기 <<동사일기>>에서도 통하는 보고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강관필담>>이란 이름도 임수간이 처음 붙인 것으로 증언해 주고 있다. 귀국길에 下關에서 풍랑에 막혀 여러날 머물며, 무료한 심정을 달래면서 그는 이 글을 엮었다. 행랑 속의 넓은 종이 뭉치를 꺼내 필담한 글을 엮어 차례를 정하고, 그 이름을 <<강관필담>>이라 하였다. 통신사 일기나 연행사 일기 속에 보이는 외교적 필담은 대개 필담한 사람의 이름이나 장소를 앞에 붙여 제목을 정하는 게 보통이다. <<강관필담>>이란 아마도 江關에서 필담한 글이란 이름일 것이다.

Ⅲ. 18세기 한일 외교문화의 양상

1. 일본 외교의 두 주역 ① - 新井白石

18세기의 한일 외교는 1711년 辛卯 조선 통신사의 일본 파견으로 시작되었다. 이 사절 뒤로 1719(己亥)년의 조선 통신사행은 申維翰의 <<海游錄>>으로 널리 알려졌고, 1748(戊辰)년의 洪啓禧, 1764(甲申)년의 趙曦의 사절이 이어졌다. 18세기의 한일 외교를 여는 신평 조선통신사절 때에는 특히 일본 외교의 주역이었던 新井白石의 외교제도 개혁으로 한일 외교의 전환의 때이기도 했다. 이를 증거하는 글로써 조선 부사 任守幹의 <<東槎日記>>, 金顯門의 <<東槎錄>>이 있고, 新井白石의 여러 문서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江關筆談>>이 있다.

임수간의 《강관필담》서문에 보이듯이 新井白石은 이때 한일외교의 일본쪽 주역이었다. 그리고 임수간은 한일 외교관들의 교류를 증거하는 이 필담에서 특히 이 주인공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서문을 쓴 듯하다. 임수간은 白石을 소개함에 있어서 세 가지 화제를 이끌고 있다. 첫번째는 대마도 서기 雨森東이 가지고 온 白石의 詩集이 자못 불만했다는 점, 둘째는 白石이 東武의 객관으로 찾아와 접대가 간곡했다는 점, 그리고 끝으로 白石의 벼슬과 나라의 총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여기서 白石의 이름은 筑後守源珙, 白石은 그의 호이고, 왕위에 오르기 전의 장군의 친구라 하였다. 조선 辛卯사절을 만난 1711년 10월에 白石은 나이 55세로 從五位下の 筑後守가 되었고 조선 사절을 맞은 것도 이달이었다. 본명은 新井君美이고, 1657년 江戸에서 태어났다. 덕천막부의 文柄을 잡았던 林羅山(1583-1657)이 죽은 해에 그가 태어났다. 그리고는 儒學에 정진하여 당대의 名儒 木下順庵(1621~1698)의 문하에서 공부했다. “장군이 왕위에 오르기 전의 친구”라 한 것은 뒤에 장군 家宣이 된 甲府綱豊에 출사한 일을 가리킨다. 白石 37살이던 1693년부터의 일이다.

또 “지금은 寄閣大臣이 되어 무상출입한다” 하였는데, 1709년 白石의 나이 53살 때에 家宣이 장군이 된 뒤로 조선 辛卯 사절을 맞기까지 3년가까운 세월에 白石의 정치개혁은 정력적인 것이었다. 白石은 장군이 바깥과 더불어 그 정치고문이 되었다. 그는 즉시로 皇子皇女出家 폐지책을 진언하며, 금은화의 改鑄 반대 건의, 長崎 무역 건의, 朝鮮聘禮의 건의, 이탈리아 선교사 씨도치(Juan Bapista Sidotti)에 대한 4번에 걸친 취조, 씨도치처분안 상정(이상 1709년) 武家諸法度 초안, 新令旬解 상정, 사법관계 판결안의 진상(이상 1710년), 조선사절 응대법의 개정(1711년)을 담당했다.

임수간의 서문에서는 제일 첫머리에서, 雨森東을 통해 보내온 白石의 시가 자못 칭고하고 불만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태억 등의 신묘사절 이후로 白石의 이름이 그의 한시와 함께 조선 문단에 알려졌지만, 그는 그의 나이 26살이던 1682년에 조선 壬戌 사신들과 시로써 창화한 바 있었다. 이때 이름있는 제술관 成琬, 서기관 李暉齡, 부장 洪世泰 등과 창화했고, 성완이 그의 시집에 서문을 써 주었다. 이 사실이 그의 자서전 《折たく柴の記》에 자세히 전하는데 [新井白石集, 日本の思想 13, 筑摩書房, 210쪽], 白石은 이일로 해서 木下順庵선생의 제자가 되는 영예를 얻었다.

白石은 자신이 문학 수업에서 겪었던 고통을 뼈아프게 회상하고 있지만, 그의 명성은 시인으로서 가장 뛰어났다. 이 일은 白石의 장남 明卿의 증언만으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아버님은 학술로 聖代에 알려졌고, 또한 시로써 세상에 명성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님을 알기는 특히 시 때문이었다.

〔父上は學術をもって聖代に知られ、そして詩をって世間に名聲があった。世人が文上を知った

のは、とくに詩によってである〕。〔白石先生余稿緒言, 原漢文〕

특히 유학자로서 한시의 교양을 높이 샀던 조선 사신들에게 白石의 이 문학적 교양은 높이 평가되었다. 그리고 이런 외국인 사절의 평가야말로 그로 하여금 당대의 명성을 보장하였음은 물론이다. 조선 사신으로서 임수간이 白石을 평가하는 첫번째 기준으로 한시의 교양을 든 것은 마땅한 일이었으리라.

신묘 조선 사절이 일본에 오기 2년전에 네차례나 白石에게 심문을 받은 바 있는 씨도치는 그가 500년에 한번 나기 힘든 천재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과연 그는 명치 이전에 살았던 日本 최고의 박학자로, 역사가이며, 고전학자요, 서양학자·문학자·시인, 정치가와 외교관을 겸한 학자였다고 평가받고 있다〔桑原武夫: 新井白石の先驅性, 新井白石集〕. 이러한 白石의 학식은 조선 사신들에게도 점차 알려졌고, 이런 白石과 조선사신의 필담은 한일교류의 새로운 시대를 증언해 준다고 생각된다.

白石은 신묘 조선 통신사가 일본에 오기 전부터 사신 접대의 간소화를 건의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조태억·임수간 등 사절 때에 이 간소화를 실행한 외교담당자였다. 이 문제로 한일간의 외교적 마찰이 적지 않았다. 또 일본의 유교와 한시의 교양을 대변한다면, 대대로 일본의 文柄을 잡아온 林羅山の 林家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직책과 명성이 모두 白石 앞에서 가리워지고, 그의 학식과 문학이 조선사절에게 까지 인정되었다.

2. 일본 외교의 두 주역② - 雨森東

조선 사절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대마도 서기로 雨森東이 있었다. 그는 新井白石과는 木下順庵 문하의 동문이고, 그 학문과 시가 모두 뛰어난 인물이었다. 특히 조선어에 능통하며, 조선 사절을 대마도에서 맞아 다시 대마도에서 보낼 때까지 줄곧 수행하는 직책에 있었다.

임수간의 <<강관필담>>에는 우삼동의 이름이 두차례 오르고 있다. 서문의 첫머리는 바로 대마도 사람 雨森東이 白石의 시집을 가지고 왔다는 기록으로 시작된다. 이때 雨森東은 白石의 시집을 가지고 와서 조선 사신들의 서문을 청했다. 아마도 대마도에 이르렀을때의 일일 것이다. 두번째로는 이 필담의 끝부분에서 필담 중에 雨森東이 들어온 사실을 적고 있다. 이 때에는 조선 사신이 白石에게 그의 벼슬을 높여 주도록 권고했다.

조태억의 <<강관필담>>에는 雨森東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그의 글에는 서문이 없으므로 임수간의 서문에 보이는 것과 같은 우삼동의 화제도 그 이름도 없다. 다음으로 두 이본의 필담 내용을 비교한 제 23 항에서도 보인 바와 같이 필담 중에 雨森東이 들어온 화제도 조태억 본에서는 빠져 있다.

그러나 조태억이 雨森東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것은 임수

간본에 제 23 항에 보이는 우삼동의 화제가 바로 조태역의 발언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임수간본 <<강관필담>>에 따르면, 조선 사신과 白石의 필담이 끝날 무렵에 우삼동이 들어와 알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조태역이 白石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雨森君은 참으로 쉽게 얻지 못할 奇士인데, 어찌 빠뜨려 두어 불우하게 합니까? 값진 보배를 길가에 버리는 것은 옛사람도 애석히 여겼는데, 한번 불러서 하늘에 올려 보내지 않겠읍니까?

이렇게 시작된 雨森東의 화제가 白石의 약속으로 이어지자, 조태역은 “돌부처도 머리를 꺼덕인다”는 옛말로 雨森東에게 축하를 보냈다.

白石도 우삼동의 장래를 약속하는 말에서 그의 재주를 칭찬하여 말했다. 이 사람이 자신과 함께 錦里木公〔木下順庵〕아래 이름난 제자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는 忘年畏友이며, 이 밝은 시대에 이런 재주있는 이를 빠뜨릴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白石은 조선 사신들이 지나친 염려들을 한다고 비꼬았지만 이 말 뒤에도 우삼동을 염려하는 조선 쪽의 발언은 잠시 계속되었다. 제술관이었던 李磻〔東郭〕은 말하기를 우삼동이 조선국에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냉대받지는 않았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일본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의 결함된 정치라 하였다. 이 모두가 우삼동의 재주를 사랑하는 관심들이었을 것이다.

사실 우삼동은 대마도의 한낱 서기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학문과 경륜은 白石과 함께 당대에 뛰어난 바 있었다. 1668년생이므로 이때 그의 나이는 43세로 한창 장년의 기품이 깊었을 것이다. 1719년 사절의 제술관이었던 申維翰은 雨森의 말이 무겁고 마음속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쓰고 있다〔海游錄, 己亥 6월 24일의 일기〕. 나이는 白石보다 12살 아래였지만 일찌기 18살에 江戸로 나와 木下順庵 문하에 들었다. 白石과 거의 같은 해에 木下선생의 문하에 들어가 동문수학했다. 4년 뒤인 1689년에는 스승의 추천으로 대마도주 宗義眞의 서기가 되었고, 26살 때부터 대마도로 건너가 藩의 행정과 교육, 대조선 외교를 담당했다. 그는 조선 사신들이 애써 그 인물을 추천할 만큼 유학과 한시에 능한 사람이었고, 통역없이 조선 사신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신유한은 雨森에게 특히 墨客다운 疎暢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그가 수세대 전까지 이어온 武家の 심성을 안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데서 오는 인상이었을지도 모른다(上垣外憲一: 雨森芳州と韓國, 제 2차 韓日合同學術會議 발표논문).

雨森東은 白石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후 63년간 대마도의 藩儒로 일생을 마쳤다. 그러나 中世 이래의 전통에 따라 德川幕府의 대조선무역과 외교를 독점적으로 담당했던 대마도 외교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가 직접 맞은 조선통신사는 1711년과 1719년의 두 차례뿐이었다. 이때 그는 대조선외교의 주역이었고, <交隣提醒> <朝鮮風俗考>와 <交隣須知>라는 어학교과서는 그의 손에서 지어졌다. 그가 비록 세습제도 아래 일본사회에서 높은 벼슬을

알지 못했으나, 18세기 한일교류의 일본 쪽 주역이었음을 이로써도 알 수 있다.

3. 정치적 대립과 문화적 交歡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의 교섭에는 국가적 차원과 개인적 교류의 두가지 면이 필연적으로 떠오른다. 이것을 조선 통신사절과 新井白石의 관계에서 살필 때 공적 정치적 대립과 사적 문화적 교환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적으로는 주로 후자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지만, 《강관필담》이나 《白石全集》에 전하는 《坐間筆語》 등은 한시의 창수와 함께 사적 문화적 교환의 기록을 대표한다. 그밖에 《白石全集》에 2백 수십쪽으로 정리된 조선사신 접대의 간소화 문서들이나 조선 사신들의 일기는 정치적 대립을 증거하고 있다. 白石은 사신 접대의 간소화와 國書復號 문제 등으로 공적을 표창받고, 조태억은 辱國의 죄를 받아야 했다. 그러면서도 개인적 문화적 필담과 창화와 웃음이 없을 수 없는 곳에 한일외교 문화의 대표적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임수간의 《동사일기》나 《白石日記》 등을 살펴보면, 백석은 모두 일곱차례 조선사신의 객관을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백석일기》에 따르면, 이 중 네번은 백석이 조선 사신을 만나지 못했음이 들어난다. 곧 1711年 10月 17日 川崎驛에서 三使를 만난 뒤로, 20일, 21일, 28일, 11월 2일에는 모두 “三使에 不及對面”이라 쓰고 있다. 조선의 세 사신이 白石을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른바 白石의 조선사신 접대의 간소화란 것이 예외의 문제로 조선 사신들을 얼마나 분노하게 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백석의 《坐間筆語》란 것이 11월 3일에야 이루어졌고, 《강관필담》이 이루어진 것도 11월 5일의 일이었다. 이른바 백석의 강한 민족주의가 조선 사신들과의 교류를 가로막고 있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 공적 정치적 대립 속에서 이 두개의 사적 문화적 교환의 기록은 지극히 귀중한 것이다.

두 개의 필담이 이룩되기 전에 조선통신사와 白石 사이에는 일찍부터 사적 문화적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수간의 《강관필담》 서문에 보이듯이, 白石은 조선 사신이 대마도에 이르자마자 자신의 《白石詩集》을 읽어주도록 준비해 놓고 있었다. 그는 동문인 우삼동을 시켜 조선 사신들에게 자기 시집에 서문을 부탁했다. 여기서는 白石의 정치적 외교적 의도가 들어나고 있지만, 이로써 한일 문사간의 문화적 교류는 벌써 이루어지고 있었다. 먼저 제술관 李穡은 우삼동의 부탁으로 이 시집에 서문을 짓게 된 까닭을 밝혔고, 이어서 정사 조태억을 비롯한 세 사신이 서문을 붙였다. 이 글들을 통해서 조선 사신들은 白石이 木下順庵 문하의 재주있는 문인임을 듣고, 그의 시가 중국인의 기풍을 가졌다고 쓰고 있다. 이렇게 조선 사신과 白石 사이에는 개인적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임수간도 그 서문에서 “白石의 시가 자못 淸高하고 불만 하여” 세 사신이 각각 글을 지어 주었음을 밝히고, 백석이 관에 머무는 동안 자주 찾아오고 매우 간곡히 대했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백석의 일기들에 반복해 보이는 이 “不及對面”이란 어떤 상황의 기록일까? 이 야말로 나라 사이의 외교적 정치적 대립 양상의 단적인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마도까지 자기 시집을 보내 세 사신의 서문을 청했던 白石, 東京에서 30리 川崎까지 마중나와 매우 간곡히 접대했던 白石의 외교적 음모가 “不及對面”에 이르게 한 것이다. 외교란 나라 사이의 예의의 만남이다. 그래서 예부가 이를 담당했고, 따라서 여기에는 서로가 납득할만한 외교적 예의와 관례가 존중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때 白石은 일본의 단독적 조치로써 조선 통신사 접대의 간소화를 단행한 것이다. 이는 조선통신사절로 하여금 심한 불평을 갖게 만들었다. 개인적 문화적 접촉에서 예의와 문화적 고상함으로 사귀기 시작했던 이들 사이에 국가적 대립이란 정치적 괴물이 끼어들고 있다.

백석이 자기 시집을 미리 대마도로 보낸 것은 벌써부터 외교적 정치적으로 계산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이것이 단순히 조선 사신들의 서문을 받기 위한 개인적 요구였다면, 이렇게 서둘러 대마도까지 보낼 필요가 있었을 것인가? 그는 먼저 文治主義 나라의 사신들에게 문화적 자신감으로 외교의 전초전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종래의 일본의 무력적 침략에 대해서 조선 사신들이 문화적 복수심을 지녀왔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게다가 종래의 조선통신사에 대한 덕천막부의 예우가 너무 지나친 비용을 써왔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문화적 전초전의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고 보인다. 일본의 白石 연구가는 이것을 가리켜 “조선 사절에 대한 문화상의 제1격”이라고 말한 바 있다〔宮崎道生：新井白石の時代と世界，187쪽，吉川弘文館〕. 이 말대로라면 백석의 이 개인적 문화적 발상에는 정치적 대립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시 일본 외교를 관장했던 白石의 자주외교의 자각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덕천막부의 쇄국정책 속에서 조선과의 외교는 일본 국제관계의 통로였고, 조선 통신사의 중요성은 막부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백석은 이 중대한 외교의 원칙으로 和平・對等・簡素를 표방했다. 대등이란 원칙 아래 막부 장군의 이른바 “復號”를 주장하고, 간소한 원칙아래 조선 통신사 접대의 예의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통신사 접대의 원칙으로 표방된 세 항목 중에 두 가지가 그나름의 자주외교의 자각이었음을 지나쳐 버릴 수 없었다.

“대등”이란 조목은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자각에 근거를 마련했다. 이것은 일본의 장군이 실질적 일본국왕이며, 이때 막부의 장군은 조선국왕과 대등하다는 발상이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일본 천황과 황제가 대등하다는 논리로 소급한다. ‘復號’가 문제되는 것은 일본국왕이란 이름이 원래 조선에서 일본천황을 가리키는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일본의 실권이 장군에게 있음을 알고 “일본대군”에게 국서를 보냈었다. 그런데 이 장군에게 다시 국왕의 이름을 써달라는 주장이었다. 조선 통신사 접대의 간소화 논리도 여기서 생겼다. 京都의 日皇의 칙사가 江戸의 장군에게서 받는 접대보다 조선 통신사를 우대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사실 조선 통신사를 맞이 하느라 드는 일본쪽 경비는 각 지방의 지공을 빼고도 막부의 지출만으로 백만냥이었다. 한다. 그때 외국인으로 최우대되었던 이탈리아 선교사 씨도치의 1년 급료가 25냥이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 돈은 막부의 운명을 건 경비였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외교적 원칙이란 막부 외교의 전권을 맡은 백석이 세계 속의 조선의 위치를 가늠한 계산이었다고 할 수 있다〔김태준: 동아시아 문학의 自國主義와 中華主義의 위기, 東國大 日本學 제 6 호 참조〕. 한시로 창화하고 한문이란 공용문자로 필담하는 개인적 문화적 교환 속에 이런 정치적 대립의 발상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IV. 서양 인식과 중화주의의 위기

《강관필담》에 보이는 두 나라 문인들의 중화화제에서는 서양에 대한 인식과 중화주의가 흥미를 끈다. 주목되는 점은 이 화제에서 두 나라 문인·학자들의 사고방식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백석은 새로운 서양인식에서 화제를 주도하고, 조선 사신들은 아직도 옛부터 가져온 중화주의에 깊이 집착하고 있었다. 그 지식에 있어서나 발상의 운용에 있어서 조선 사신들은 보수성에 얽매어 있었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서양에 대한 화제는 백석의 자신만만한 자기 소개와 함께 유도되었다. 백석이 “不及對面”이라 기록한 긴장의 며칠이 지난 뒤에, 《강관필담》의 서두에서 그는 이 화제를 이끌었다. 입수간의 일기에 따르면 백석은 “내가 불민한 사람이지만 스스로 다행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대서양 구라파 지방의 이탈리아 사람과 화란·유구 또는 唐山 등 여러 나라 사람을 직접 보았고, 이제 조선의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라 했다. 이야말로 당당히 자랑할 만한 행운이었다. 화란인과의 본격적 만남은 1712년 이후의 일이지만, 이탈리아 선교사 씨도치를 네번이나 심문한 사실로써 이는 서양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얻고 있었다. 이 체험을 토대로 그의 서양지식은 만국지도와 함께 地球大로 확대되어 있었다. 서양에 대한 그의 지식은 1715년에 쓴 방대한 《西洋紀聞》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서양 여러나라의 지리에 대한 관심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서양기문》에 따르면 백석은 1709년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씨도치를 심문하였다. 이것은 조태억 등 조선 통신사와 만나기 2년전의 일이었다. 그는 씨도치 심문의 첫째날로부터 셋째날까지 주로 구라파 여러나라를 중심한 세계지리를 묻고 있다. 둘째날의 취조기사 중에는 〈萬國圖〉가 나오는데 이것은 요한 블라우 (Joan Blaeu, ?~1680)의 東西兩半球圖였다. 이 세계지도는 호주 부분에 “1644년 발견”이란 표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宮崎道生: 《新井白石の研究》 205쪽, 註 2 참조〕. 그리고 넷째날은 시도치가 일본에 숨어 들어온 경위와 함께 천

主教法(기리시탄)에 대해 소상하게 심문했다. 이것은 《西洋紀聞》 下卷에서 당대 일본 최고의 기리시탄 소개·비판서로 집대성되었다. 이런 서양 체험은 화란 관계의 저서들과 함께 白石으로 하여금 일본 제 1의 서양학자로 자신에 넘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불민하지 만 스스로 다행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운운하는 임수간의 증언을 낳게 한 것이겠다.

이 말에 이어서 나온 임수간의 질문처럼 조선 사신은 구라파니 이탈리아니 화란이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조차 몰랐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백석은 “귀국에는 萬國全圖가 없는가”고 되물었다. 질문을 했던 조선 부사는 아마도 세계지도를 본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석의 되물음에 종사관이 대답을 했다. 고본이 있기는 하나 이런 나라들이 다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백석은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도 수천리나 되며, 대서양·소서양이 있으며,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세계지도를 보여주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제의했다. 이처럼 조선 사신들의 서양지식이란 관심밖이었고 그 뒤에도 계속 발하는 질문이란 것이 유구가 여기서 몇천리나 되는가, 福建과 長崎의 거리가 얼마이며 해적은 어떤 것인가, 利瑪竇의 문적이 남아 전하는가 이런 정도였다. 이 화제에서 조선 사신들은 완패였고, 서양지식을 화제로 올린 백석의 의도는 주효했다.

세계지도에 대한 종사관의 대답도 전혀 정확성이 부족하다. 마테오·리치가 제작한 坤輿萬國全圖가 조선에 전래된 것은 1603년의 일이었다. 선조임금은 李光庭을 사신으로 보내 이 지도를 사왔다. 이것은 조선조의 지리관에 일대 혁명을 일으킨 사실이었고 중국을 중심한 세계관을 근본부터 뒤엎은 세계개안이였다〔山口正之：世界開眼，〈朝鮮キリスト教の文化史的 研究〉〕. 부제학 李睟光은 이 지도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서역지방이 특히 상세한 점과 구라파가 서역의 끝에 있어 중국으로부터 8만리 밖에 있음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李睟光：〈芝峰類說〉 卷二〕. 두번째로 1630년(仁祖8年)에 중국에 갔던 진주사 鄭斗源 또한 예수교 선교사 로드리(Johannes Rodoriguez, 陸若漢)로부터 마테오·리치 세계지도 여섯 폭을 선물로 받아왔다. 이때의 역관이었던 李榮後는 학식있는 사람으로 이 지도를 보고 놀랐고, 로드리와 편지를 교환하여 그 놀라움을 후세에 전했다. 이 지도는 조선 사회에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병풍도로 유행했다. 또한 昭顯世子와 친교를 맺었던 아담·샬(Johannes Adam Schall von Bell, 湯若望)이 제작한 乾象輿圖도 전해졌다. 다음은 1674년 南懷仁(Ferdinand Verbiest)이 제작한 坤輿全圖 여덟 폭은 신형의 兩半球圖式 지도였다. 이것은 새로 발견된 호주가 기입된 것으로 조선조에는 성하게 수입되고 또 여러번 중간되기 까지 하였다. 이렇게 중국을 통해 전래된 각종 세계지도가 조선 근래의 세계 지식을 크게 확대하고 있었던데 비하면 이때 조선 통신사신들의 세계지식은 한심한 상태였다.

다음으로 조선 사신이 자연스럽게 이끌고간 화제는 유구사절의 관복 문제로부터 중화문명론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중심이 된 화제는 복식의 제도와 문무 논의였다. 예의를 존중하는 조

선 지식인들에게 있어서 복식은 예법의 기준이었다. 어디를 가나 복식논의를 일삼는 조선 지식인들이 유구사신의 복식을 화제에 올렸다. 아마도 사신들이 하늘아래 조선만이 東周의 예법을 따르고, 大明의 제도를 따라 중화문명의 바른 전통을 이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청나라에 사신가는 연행사들도 언제나 주화제로 삼는 자궁이었다. 게다가 일본도 함께 중화의 제도를 쓸 것을 권유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백석은 단연 이를 거절했다. 청나라 자체가 중화의 제도를 버렸고, 자기 민족의 풍속으로 천하는 통일하고 있다. 이제 조선과 유구만이 명나라 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무슨 이유인가고 따졌다. 여기에 석연한 합일점이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중화주의의 심각한 위기가 들어나고 있었다.

다음으로 두 나라 외교의 근본 문제와 관련하여 평화관계를 위한 文武文明이 화제에 올랐다. 조선 정사 조태억은 일본에서 文教가 바야흐로 일어나는 것에 一變의 희망을 갖는다고 말했다. 부사 임수간은 일본이 총칼을 장기로 삼는다니 우리의 활쏘고 말타는 재주와 바꿔 보도록 하자고 재삼 청하여 말했다. 두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문교가 일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며 한편으로는 문교를 떠난 총칼을 업수이 여기는 발언임에 틀림없었다. 양반의 나라라고는 하지만 조선조는 문을 숭상하는 인문주의적 사고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석은 중국의 역사를 보기로 들어 해명에 급급했다. 일본은 본래 武를 숭상하는 나라이다. 이것은 帝室의 덕이 쇠하여 무기의 분쟁이 잇달아 일어난 때문이다. 인후한 풍속을 한번 변하여 勇武의 기풍을 높이게 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어진 자의 용맹이요, 동방의 풍기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따라서 무예를 높이는 것이 문교와 떨어질 수 없는 일체인 것이다. 백석은 여기서 “착한 사람이 나라를 백년동안 다스리면 또한 잔악한 자를 이겨내고 형벌을 제거할 수 있다. [善人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 《論語》子路篇]”고 한 공자의 말을 이끌었다. 이 말은 백석이 덕천막부 백년 간의 문무 충효가 하나로 이룩되었음을 강조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어서 이들의 필담은 일찌기 申叔舟가 成宗 임금에게 일본과의 친선을 잃지말도록 간했다는 화제로 옮겨갔다. 두 나라의 우호관계를 말할 때에는 언제나 인용되는 격언이지만 우호를 닦는다는 예의와 풍속이 소소한 절목만은 아니었다. 백석은 조선 사신 접대의 예의를 간소화 하면서 이를 소소한 절목이라 말하였다. 그러나 조선 사신으로서 일본의 외교의 무성의와 무예를 높이는 풍속에 쉽게 수긍할 수 없었다. 국서의 회담하는 문자를 미리 보여주도록 요청한 것도 이런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라. 여기서 두 나라 외교관들의 화제는 복식 예의와 문물의 중화주의로 장황히 이어졌다. 그러나 이것이 두 나라의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공허한 대답이었다. 면류관이니 深衣의 옛 제도를 어느 쪽이 더 잘 간직했는가 하는 논의는 벌써 빛바랜 중화주의의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 관혼상제에 朱子家禮를 쓰느니 안쓰느니 하는 논의도 벌써 두 나라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우호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

임수간 사본에 따르면, 이때 조선 정사와 부사는 일본 문교의 흥성을 반복하여 치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일본의 무예가 숭상된다는 말과 관련하여 이 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곧 문교가 흥성해야 나라 사이의 우호와 평화가 이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수간 본에 따르면, 부사가 일본인의 검술을 보고 싶다고 거듭 청했으나 백석이 이를 반기지 않는 기색이었다. 한다. 일본 문교의 흥성을 강조하는 곳에서 일본인의 무력적 침략의 역사를 되살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문교를 숭상하면 무력으로 다시 침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니, 이것은 丁若鏞의 日本論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서양 인식에서 크게 미치지 못했던 조선조의 학자들은 또한 文弱에 안주함으로써 중화주의적 발상 또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漢詩의 교양과 옛 복식제도에서 우월성을 강조했던 중화주의는 벌써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강관필담》이 이루어진 날은 끝내 시의 창화가 없었다. 이날 저물녘에 조선 제술관 東郭은 한시의 창화를 제안했다. 조선 사신이며 백석공과 한 자리에서 나눈 기쁨이 천년의 기이한 사귄데 시 한수 없음이 유감이라 했다. 그러나 백석도 조선 정사도 또한 따로 시를 읊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하루 동안에 서로 나눈 이야기가 10년 동안 글을 읽은 것과 같다고도 했다. 또 만년 읽은 것과 같다고도 말했다. 문인들의 외교에서 뺄 수 없었던 한시의 창화 대신에 실무적 관심사와 해학에 찬 농담이 만발하였다. 조선 서기 南岡의 말처럼 “창밖에는 눈보라가 치는데 화로 옆에서 술향아리 여니 이 즐거움이야말로 山陰에서 샷대 놀리던 것보다 훨씬 나은” 흥이었다. 晉의 王子猷가 눈 내리는 밤에 흥을 일으켜 친구 戴安道를 찾아 蕪溪까지 배를 대었다는 〈山陰夜雪〉을 이룬 말이다 [世說新語任誕]. 술자리에 음식은 풍성한 채 끝내 시의 창화는 없었던 필담의 모꼬지였다.

중화주의의 위기는 우삼동의 화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날의 필담이 끝날 무렵 우삼동이 들어왔다. 조선 정사는 우삼동이 참으로 쉽게 얻지 못할 奇士인데 어찌 빠트리 불우하게 두느냐고 했고, 東郭은 이 사람이 만일 조선에 태어났다면 이렇게까지 냉대받지는 않았을 것이라 했다. 그는 일본의 정치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결함된 것이라 하였다. 일본 당대의 문인이었던 우삼동의 불운이 科擧의 나라 조선 문인 정치가들에게는 문인을 냉대하는 일본 정치의 현실로 비쳤던 것이라. 능력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과거제도가 일본에는 발붙일 수 없었던 때문이다. 詩文으로 조선 사신에게 칭찬을 받았던 三宅緝明의 화제도 간단히 끝나 버렸다. 백석에게서조차 漢詩 시대의 종말이 예견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곧 中華主義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했다.

V. 한일 교류사에 대한 공동관심

이들의 필담 가운데에서 지나쳐버릴 수 없는 화제가 한일 교류사에 대한 서로의 관심이었다. 이 관심은 외교와 문학적 교류에 걸쳐 있지만, 모두가 일본에 여행했던 조선통신사절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 《강관필담》에서 화제에 오른 사절로는 申叔舟·鄭夢周·朴敦과, 일찌기 白石이 壬戌에 만났던 洪世素, 成琬 등이 있었다. 일본 쪽 인사로는 정몽주와 교류했던 源了俊과 조선 사절과 대대로 관계했던 三宅緝明의 이름이 보인다. 역대의 교류사에 대한 이러한 공동 관심은 외교사의 당연한 귀결이지만 이름있는 인물들이 중심화제에 오른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강관필담》을 읽고 있는 임수간의 《동사일기》에는 그 맨 첫머리에 〈前後通使座目〉이라 하여 정몽주 이래의 사절의 좌목을 실고 있다. 申叔舟·鄭夢周·朴敦의 이름은 주로 한일간의 외교적 교류사의 관심으로 화제에 올랐음을 알 수 있다. 白石은 일본이 武를 숭상할 뿐이라는 조선 사신의 공격적 지적에 답하면서 먼저 申叔舟의 말을 이끌었다. 일찌기 신숙주가 일본을 논할 때에 成宗임금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고 물었다. 신숙주는 대답하기를 부디 일본과의 친선을 잊지 말도록 당부했다〔〈前後使行備考〉《海行摠載》〕. 백석은 이 말을 이끌면서 이것이 참으로 대신으로서 나라를 걱정한 말이며, 지금 조선 사신들은 이 말처럼 마음을 쓴다면 두 나라를 위하여 큰 다행일 것이라 했다. 신숙주는 일찌기 세종 25년 (1443)에 통신사절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왕래했고, 이 사행의 체험으로 일본과의 친선을 당부했던 것이리라. 뒤에 그가 지은 《海東諸國記》는 한일교류관계의 규범으로 성종 임금의 명을 받아 지은 책이었다〔海行摠載 중 해동제국기 해제참조〕. 특히 신숙주는 임진년 시절의 정사 조태역의 外祖上이었으므로 백석과의 사이에는 더욱 좋은 화제였다.

다음 鄭夢周 또한 이 때의 선전관 鄭纘述의 11대조라는데서 화제에 올랐다. 정몽주는 고려 우왕 3년 (1377)에 사신으로 일본에 가서 九州節度使 源了俊과 교린을 의논했다. 백석이 부사의 선전관 鄭纘述〔新井白石全集에는 鄭壽松〕을 만나 그 11대조 정몽주의 사적을 말했는데, 源了俊과의 교류는 《해행총재》, 〈鄭圃隱奉使時作〉 연보에도 기록되어 있다. 화제는 源了俊의 후손에게도 미쳤는데, 그 후손 源伊氏가 또한 근위소장으로 關中受書官이 되어 조선 사신을 맞이하고 있었다. 백석의 〈朝鮮信使進見儀注〉에 따르면, 十一月朔日に 出仕한 인사들의 명단 중에 〈高家〉라 하여 맨 처음으로 〈品川豊前守 源伊氏〉란 이름이 보인다.

(《국역 해행총재》에는 源伊 밑에 존칭으로 ‘씨’를 붙였으나, 〈源伊氏〉까지를 이름으로 보아야 한다). 이날 受書官이 된 源伊氏는 國書 전달식장에서 中段에 무릎으로 걸어 조선 국서갑을 열어 국서를 들고 다시 무릎으로 뒤로 물러 내려서 林太學頭에게 전해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태학두가 국서를 읽은 뒤에는 源伊氏가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갑에 넣어 올리고 무릎으로 걸어 자리에 돌아 갔었다〔新井白石全集, 朝鮮聘札事〕.

필담 중에 제술관 東郭 李暉과 서기 洪衍舜등 세 명의 서기가 들어오자, 홍서기와 관련하여 洪世泰가 화제에 올랐다. 滄浪 홍세태(1653~1725)는 숙종 때의 이름있는 문교으로, 壬戌사절(1682)때의 부사의 자책 군관이였다. 어려서부터 經史를 통달하고 시에 능하였다. 일본에 사신 가서 그가 시묵으로 드날린 이름은 여러곳에 전해지고 있다. 통신 사행 중에서 그의 이름이 申維翰과 함께 일컬어진 것은 그의 문명을 증거하는 일이었다. 영조 39년(1763)에 통신사가 되었던 趙暉(1719-1777)의 《海槎日記》에는 〈筵話〉에서 임금이 제술관 南玉의 시문을 홍세태·신유한과 비겨 어떠한냐고 묻는 기록이 보인다. 홍세태는 일찌기 金昌緝·魚有鳳등과 함께 金昌協의 문인으로 공부했고〔朝鮮儒賢淵源圖 참조〕,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 한국 閩巷詩集인 《海東遺珠》를 편찬하였다. 그는 일찌기 金昌協에게서 우리나라 여항시인의 시가 인멸될 운명에 있다는 말을 듣고, 10년에 걸쳐 두루 모아 朴繼姜 이하 48인의 시 230수를 모아 이 책을 펴냈다.

백석은 젊어서 임술시절의 홍세태를 만났음을 다행했다 말하고, 이번의 洪衍舜이 친족인가고 물었다. 여기서 백석이 “다행히 객지에서 洪滄浪을 만났다”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백석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홍세태등 조선 문인을 만난 체험이 얼마나 그에게 다행스러운 것이었던가를 살필 수 있다.

문학의 교양이 미숙해서 서적의 해석에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하는 틈틈이 문장이나 詩賦등도 공부하고 있었다. 그해 11월 경에 〈冬景卽事〉라는 칠언율시를 지었다. 이것이 내가 지은 첫번째 시이다. 어떤 사람이 내 시를 비판하는 것을 듣고 한동안 그 비웃음에 답하는 한문 한편을 지었다. 이것이 또한 내가 지은 첫번째 문장이다. 그러나 어려서 아버님이 친구와 아버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었으므로, 학문하는 일에 대하여는 어디까지나 아버지에게 감추고 있었다. 또 책 같은 것을 살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께만 자신의 학문할 뜻을 말씀드려 두었다.

스물 한살이 되어 伊豫守家를 떠나게 되어, 이때 처음으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 알게 되고, 학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스승을 구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이즈음부터 對馬島의 유학자 阿比留라는 사람과 알게 되었다. 스물 여섯살난 봄에 다시 벼슬길에 올랐다. 이 해의 가을에 조선의 사신이 왔다. 앞에 말한 阿比留를 통해서 평소에 써왔던 시 백편을 베껴 세 사람의 조선 선비에게 비평을 구했다. 9월 1일에 객관으로 찾아가 통역관 成琬, 서기관 李聘齡, 副將 洪世泰라는 사람들과 만나 창화 하였다. 그날 밤 성완이 내 시집에 서문을 써서 보내 주었다.

〔新井白石：折た〈柴の記・上〉〕

이렇게 학문의 스승도 없고 문학의 교양이 모자라서 서적의 해석에 고생하고 있었던 그에게 조선 학자들과의 만남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들 조선 문인들은 백석의 시를 비평하며 학문의 길에 여러 충고를 주었을 것이다. 특히 이 조선 사신의 서문의 계기가 되어 그는 그 생애의 스승이었던 木下順菴 선생의 문하에 드는 행운을 만났다. 벌써 30년 전의 홍세태와의 만남을 이렇게 〈다행하게〉 되새기는 백석의 뜻이 여기 있었던 것이다.

백석의 첫시집 《陶情詩集》에 홍세태는 跋語를 써서 그를 격려하였다.

내가 여관에서 陶情詩集을 보니 清新雅麗하며 왕왕 모래를 헤쳐 금을 찾아내는 바가 있었다. 사람으로 하여금 놀라게 하니, 참으로 작자의 솜씨라 할 만하다. 그 사람을 만남에 이르니 그 시보다 훌륭하여 이야말로 표리일체의 金玉君子였다. 취히 成伯圭씨가 수백마디로 서문을 지어 이를 들어내어 나는 감히 잊붙일 것이 없어, 다만 그 경계만을 여기 적을 뿐이다.

[余在館中見有陶情集 清新雅麗往往有披沙揀金處 令人刮目 眞作者手也。及見其人勝於其詩 所謂表裡如一金玉君子也。 翠虛成伯圭氏作序發揮之纓纓數百言 余茲不敢贅只書其梗槩云爾。]

위에서 “청신아려” 하다든가 “참으로 작자의 솜씨라 할 만하다”는 평가는 백석의 〈與洪滄浪筆語〉에서 벌써 썼던 귀절이다. 名古屋의 新井家에 현전하는 이 〈與洪滄浪筆語〉에는 백석을 만난 洪世泰가 여관에서 《陶情集》을 본 소감을 “清新奇妙眞是作者手也”란 말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백석의 청을 받아들여 홍세태는 《陶情詩集》에 발문을 부쳐 이 말들을 다시 써서 이 글을 이루었다.

이처럼 홍세태가 화제에 올랐던 辛卯사행 때에 홍세태는 제술관 李躋을 통해서 30년 전에 사건 鶴山人見友人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었다. 《扶桑錄》, 人見友元은 일본의 文柄을 잡은 林家출신의 문인으로 南龍翼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林道春과 함께 日本文士로 일컫는 8명 중의 하나였다. [聞見別錄]. 신묘에 홍세태가 만난 人見友元은 46살로 홍세태보다 16살이 위였으나, 두 사람의 사귀는 긴밀했다. 人見은 홍세태에게 狩野常信이 그린 〈寒江釣雪圖〉를 선물했었다. 이 그림에 대해서 홍세태는 자가의 《柳下集》에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홍세태 또한 문장뿐 아니고 그림에도 당당한 一家를 이룬 문인화가였다. 이런 홍세태였으므로 人見과의 사귀는 30년전의 우의를 세삼 되살아나게 하였던 것이리라. 애석하게도 이때 人見友元은 세상을 떠나고 편지는 그 아들과의 世交로 이어졌다[李元植: 新井白石と 朝鮮通信使 참조]. 홍세태의 화제에는 그의 편지를 부탁받은 李躋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니, 아마도 이 人見友元에 보내는 홍세태의 편지 또한 화제에 올랐을 것이다.

백석이 홍세태에 이어 成琬의 안부를 묻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다행한〉 옛 기억을 되살리는 뜻이었을 것이다. 백석은 성완의 생존여부를 묻고, 그가 그해 여름에 벌써 고인이 되었다는 대답을 듣고 애석해했다. 이야말로, 백석에게 있어 “겨우 해외에 친구를 얻었는가 했더니, 무덤 속의 사람을 조문하게 되어 가슴 아픈 일”이었다. 백석은 고인이 된 성완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듣고, 자신의 아픈 심정을 그들에게 전해주도록 부탁했다. 성완은 벼슬도 높지 않고 수명도 길지 않았으나, 역대 통신사절 가운데 문명을 드날린 제술관이었다. 그의 일본에서의 문명은 신유한의 《海游錄》등에서도 잘 증거해 주고 있다. 특히나 백석에게 있어서 성완은 일찌기 그 첫 시집《陶情集》에 서문을 주어 문학적 교양의 길을 열어 주었던 스승이었다. 백석이 그 자석전에서 말하고 있듯이, 조선문인의 서문에서 성완은 백석의 시를 처

음으로 본격적으로 비평해 주었었다. 성완은 <翠虛居士成伯圭筆序文>에서, 域內에 詩에 익숙한 자라 하더라도 백석과 그 文柄을 다룰 자가 없다고 칭찬했었다. 백석이야말로 能히 시를 배운이라 이를 만하며, 시단 풍류 일세의 마루라고 격려하여 마지 않았다. [聲似古之侯喜, 唯曰域內之老於詩者 局影袖手 莫有與白石公爭其文柄 白石其可謂能學詩者也. 白石公其可謂一世騷壇風流宗也]. 앞의 자서전의 일절에서 보았듯이 문학적 교양이 없어 글의 해석에 고생하고 있었던 백석이였다. 이런 백석에게 이 성완의 서문이 준 감격을 그는 <다행한> 기억으로 되살리며, 이때 성완의 죽음을 안타까와 했던 것이리라.

조태억본 <<강관필담>>에는 종사관 李邦彥의 서기 南聖重이 을미 통신사의 종사관이었던 壺谷南龍翼의 세째 아들임을 밝히고 있다. 임수간 본에는 이 기록이 빠져 있다. 南聖重은 나이가 47살이고 동생이 있으며, 형은 경상도 관찰사라고 자기 소개를 하고 있다.

남용익은 사행일기로 <<扶桑錄>> 3권을 남겼는데, 이 책은 역대 통신사들에게 널리 읽힌 책이다. 또한 그의 시에 차운한 시들이 적지 않을 만큼, 그의 사행 일기는 조선 사신들 사이에도 널리 읽혔다. 신유한의 <<해유록>>에는, 정사 洪致中과 신유한이 남용익의 시에 차운하여 함께 시를 지은 이야기를 들었다. 甲申年(1764)에 사신이 되었던 趙暉 또한 <<海槎日記>>에서 역대사절들과 그 통신사일기를 자세히 조사하여 적고 있다. 가끔 <<해동제국기>>와 함께 조태억의 일기를 인용하고 또한 그 시에 차운하고 있다. 또한 林羅山과 남용익이 왕복한 편지를 읽은 사실도 적고 있다. 이런 남용익의 아들이 이 사절에 동행하고 있었으므로, 남성중의 화제는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일본쪽 인사로서 源子俊의 화제는 鄭夢周의 후손 鄭繼述와 관련하여 앞에서 보인 바와 같다. 일찌기 鄭夢周가 고려 사신으로 일본에 갔을 때, 源子俊(1326-1420)은 일본의 八州 절도사의 직에 있었다. 백석전집에 실린 <<강관필담>>에는 了俊의 이름이 源貞世(さだよ)로 되어 있다. 源姓은 今川라고 불렀고 원이름은 貞世였다. 일본 南北朝 시대의 무장이며 歌學者로, 무로마찌 막부의 引付頭人으로서 八州를 제압했다. 뒤에 駿河守護가 되었는데 노래의 창작과 연구에 뛰어나고 솔직하고 개성적이었으며, 이른 바 冷泉派의 추진자로 문학사에 이름높은 사람이였다. 정몽주는 이 사람과 교류했고, 그 11대손이 辛卯사절의 무관이 되어 다시 了俊의 9대손의 영접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조태억이 백석에게 그 인물됨을 물었던 三宅緝明은 대대로 조선사신의 접대를 맡은 館伴의 출신 문인이었다. 조태억은 三宅이 보내온 시문의 文辭가 자못 풍부하고 창달하다고 말하면서, 그의 인물됨을 백석에게 물었다. 백석은 그가 文翰을 맡은 儒曹의 관원이며, 문장에 매우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임수간의 <<동사일기>> 가운데 <日記補> 11월 2일 째에는 “유관 三宅緝明이 詩를 드렸는데, 그 文才를 불만했다”고 쓰고 있다. <<동사일기>>에 붙은 이 <일기보>는 “종사관의 기록에서 요점만을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李邦彥의 臚錄

에서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

三宅이 대대로 조선 사신의 관반의 직책에 있었다는 점은 申維翰의 《해유록》에서 좀더 뚜렷한 증언을 발견할 수 있다. 1719년 9월 4일짜의 《해유록》기사에는 三宅緝明이 수백자되는 편지를 보내어 조선 사신들에게 그 문장을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신유한은 그를 가리켜, 그 활발한 문장이 倭中의 巨擘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三宅은 萍水集 두어 권을 가지고 찾아와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음을 보게 된다. 곧 그 할아버지 대로부터 詞翰벼슬로 을미년(1655) 이래 네번이나 계속해서 조선 사신을 맞았다고 했다. 緝明 또한 그 아우 茂忠과 함께 신묘년(1711) 사신 때부터 조선 사신을 접대했고, 그 창화한 시문을 한자도 빼지 않고 모아 萍水集 두어 권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각분하여 후세에 전하려 한다하며, 서문을 청했다. 이때 申維翰은 서문을 짓고 成汝弼은 발문을 지어 주었다. 이 萍水集에는 여필의 백부 成琬의 시문이 들어 있어 그로 하여금 감개무량하게 하였다.

VI. 18세기 통신사의 세계인식과 동시대의 연행사

조선 사절이나 新井白石이나 이데올로기로서는 다같이 시종 순수한 주자학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 사이에서는 세계인식의 뚜렷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것은 국가적 환경의 차이나 개인적 체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겠다. 그러나 이를 다시 동시대의 조선의 연행사와의 경우와 비교하면 좀더 흥미로운 시대정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강관필담》에 보이는 조선 통신사절과 백석의 세계인식의 차이는 우선 그 역사인식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겠다. 백석은 18세기의 실학자답게 백과전서적 지식의 소유자였다. 그중에서도 그는 역사학에 가장 두드러진 자각을 가진 학자였다. 백석은 明治 이전의 일본 최대의 역사학자로 평가되고 있다[桑原武夫: 新井白石의 先驅性, 日本의 思想 13, 新井白石集, 筑摩書房]. 백석은 戰圖時代史列傳으로 《藩翰譜》(1701)를 비롯하여, 일본통사로 《讀史餘論》(1712) 《古史通》 《古史或問》(이상 1716)과 자서전이며 동시대사인(折たく〈柴の記〉 등의 역사책을 남기고 있다. 그는 역사를 연속적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전체로 파악했다. 역사를 연대기로서가 아니라, 변화 발전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가 당대 德川 막부의 절대적정책입안자로서 대외정책이나 조선 사절 접대의 간소화를 감행한 것도 이런 역사관과 무관하지 않다.

白石의 역사연구는 일찍부터 比較研究의 방법적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인식이 뚜렷한 학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이다. 그는 유구·조선·중국 등 모든 외국 문헌을 이용해서, 이들과의 비교연구를 통해서 자국 역사를 뚜렷이 하려 하였다. 이것 또한 그

가 서양세계를 호흡하고 자기나라 밖에도 세계 여러 나라의 존재를 실감하고 있었던 역사체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조태역이나 임수간 등 조선 사신과 외교관계를 맺었던 백석이 일본 근세사상 최대의 역사가였다는 사실은 하나의 우연일 수 있다. 그러나 백석의 경우와 비교하여 《강관필담》에서 이에 필적할 조선 사신의 자각적 역사의식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아직도 전통적 중화주의나 한문학적 우월주의에 안주하고 있었다. 조선 사절들의 화제는 아직도 동아시아의 세계 밖에 미치지 못했고, 서양의 화제라야 겨우 마테오 리치의 이름을 들먹이는 정도에 그쳤다. 그들이 보았다는 〈만국전도〉에는 구라파와 이태리·화란 등의 이름이 실리지 않았고, 이 나라들의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잔주를 따로 붙여야 했다. 지리개념의 확대는 이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의식의 확대를 체험하게 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선 사신들과 백석의 역사의식 세계인식의 차이는 바로 이 지리개념의 차이와 비례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통신사들의 이런 세계인식의 한계는 이를 가령 동시대의 연행사들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辛卯 통신사절과 같은 시대에 중국에 여행했던 사람의 기록으로는 가령 金昌業의 《노가재연행록》을 보기로 들 수 있겠다. 《노가재연행록》의 세계 인식이 조태역 등 통신사절보다 얼마나 뛰어났던가는 쉽게 결론지어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연행록을 여행안내서로 여행했던 洪大容의 《을병연행록》이나 박지원 등 북학파들의 여행일기에서는 이들 18세기 연행사들의 비판적이고 근대적 역사인식을 발견할 수 있다. 홍대용의 이른바 〈域外 春秋論〉과 같은 역사인식 세계인식은 白石을 능가하는 학문적 자각을 보여주고 있다. 통신사 일기에서는 1719년 申維翰의 《海游錄》이나 1764년 金仁謙의 《日東壯遊歌》 등에 이르러서도 연행록들에 비길 세계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다. 白石이나 동시에 조선 연행사들의 외국문물에 대한 관용의 정신이 통신사들의 일기에는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두 나라 문인 학자들 사이의 세계인식의 차이는 그들의 국가적 환경이나 세계체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白石은 蘭學을 배우고 씨도치를 직접 심문한 것과 같은 직접 서양체험을 가졌다. 이에 비하면 조선 문인들은 중국을 거치고 한문으로 번역된 간접적 서양체험 밖에는 갖지 못했다. 조선 연행사들이 북경 천주당에서 서양 선교사와 만났던 18세기에, 이들은 한문 필담을 하는데 만족할 뿐이었다. 그들에게서는 서양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이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국제적 환경의 차이였다고만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보기를 실학적 사고에서 들더라도 또한 두 나라 사이의 차이가 발견된다. 조선 사신들이 유교적 예의관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에 비하면, 白石은 학문의 이상을 실용적 실학성에서 찾고 있었다. 백석은 30살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木下順庵선생의 문하에 들었다. 이때 학문의 이상을 묻는 스승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天下有用의 학문”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때 “천하”란 말은 천하국가의 뜻일 것이다. 그러나 “실학”이란 점에서 생각할 때, “천하” 곧 세계는 실천의 장으로서 “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桑原茂夫: 같은 글]. 이것을 아직도 백석이 직접적 체험을 가지기 이전의 일이다. 그러나 이 실학의 정신에서 벌써 자국주의적 사고를 확립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자국주의”란 말은 곧 근대적 개념의 민족주의 혹은 민족자존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학문에 있어서도 중국연구나 유학에 대하여는 중국책에 넘치도록 많이 論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일본인인 자신은 자기문학과 역사 연구에 여생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자각을 여기서 뚜렷이 하고 있다[新井白石: 佐久間洞巖宛 편지, 1924]. 자기 나라에 유익한 학문이란 사고가 곧 실학적 사고에 근거하는 것이다.

문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본이 문학적 교양 곧 漢詩의 교양을 두루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선 사신들은 일본지식인을 낮보았다. 또 학문을 올바르게 읽지 못한다고 흉보아왔다. 그러나 백석은 말하기를, 이것은 조선 사람이 일본의 和歌를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했다. 조선인이 和歌를 짓지 못하는 것은 후진국인 일본의 예술을 무시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에서 일본인인 자기가 조선 사신을 놀라게 할 만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 때문이다. 이런 뜻에서 《강관필담》중에는 조선 사신이 한시의 창화를 몇번이나 제의했는 데도, 백석은 끝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과 일본인이 만나 중국의 한시나 농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문학적 자각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역대의 조선 통신사절은 일본에 참된 유학이 없다고 비난해 왔다. 그것은 유학의 가장 중요한 문명성인 예악과 문학적 교양을 일본유학이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졸고: 유교적 문명성과 문학적 교양, 비교문학 비교문화 2호, 1978]. 중국에서도 유학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목표로 하는 실천의 학문이었다. 이것은 과학을 결합한 서양 근대사상에서처럼 인식과 실천을 나누어 생각하지는 않는 학문관이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실학적 특색이 한층 두드러졌고, 학문을 위한 학문이란 생각을 정립하지 않았다고 한다. 조선의 제술관 李穡은 이날의 《강관필담》의 기쁨을 천년만의 기이한 일이라 하고, 그러나 시 한 수가 없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백석은 대답하기를 오늘의 웃음과 기쁜 이야기는 비록 금석을 연주하더라도 이 이상 더할 수는 없을 것이라 했다. 조선 사절의 접대문제나 奈良 寺院의 격식 논쟁에 정력을 허비하는 것은 학문을 위해서는 슬픈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문 또한 천하의 유용을 얻을 때 비로소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백석은 생각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교적 실갱이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학문의 성취에 만족하고 있었을 것이다.

조선 통신사나 연행사에게 있어서나 실학적 관심은 18세기 이후에 다같이 뚜렷해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특히 종래의 문학적 관심보다 실학적 관심이 드러나게 뚜렷해진 것은 아무래도 연행사절쪽이었다. 18세기 실학파의 연행사들에게서는 이 실학적 관심이 문체의 혁명

에까지 이어지지만, 이 점에서 통신사들의 외교문화는 시대적 한계성을 크게 들어내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Ⅶ. 문학적 자국주의의 허상과 실상

역대 조선통신사절 중에도 이 신묘사절들이 창화한 시가 가장 많이 흠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신묘사절보다 8년뒤, 己亥(1719)사절의 제술관이 되었던 申維翰의 증언에서도 확인된다[《海游錄》 11월 4일 일기]. 과연 임수간의 《동사일기》를 읽더라도 백석과 雨森東은 물론, 林家의 官學派 문인들과 三宅緝明 등등 많은 문인들과의 교류를 여러 곳에 전하고 있다. 백석과의 관계에 한정하더라도 그는 대마도로 자기 시집을 보내어 인사를 가름했고, 떠나 보내는 날 다시 수십 수 시를 보내어 전별했다. 이들의 사귀는 시로 마중하고 시로 창화하고 시로써 배웅했다. 그리고 신유한의 증언처럼 이들이 창화한 시는 창화집으로 여러 곳에 흠어져 사랑받았다.

유교적 교양으로 다져진 이들 두 나라 외교관들 사이의 교류는 유교문화의 필수인 문학적 교양으로 매개되었다. 따라서 한시의 재주를 인정받는 일은 곧 이들의 교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요건이었다. 그리고 이 점은 두 나라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교류상의 요건이었다. 자기의 시집을 대마도까지 보내서 조선 사신의 서문을 받게 한 백석의 행동에서 이 점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 쪽에서도 문학적 우월주의로 이에 응대했음은 물론이다. 백석이 서문을 청하여 비평을 요구한 것만으로 조선의 이 문학적 우월주의는 일본에도 양해되어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유교적 문명성으로서 한문학적 교양은 아직도 한일 지식인들 사이에 문학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한문학적 교양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나라 사이에서 외교적으로 이용되기에 이르면서, 문학은 점차 자국주의의 허상을 대변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사신이 대마도에 이르자마자 백석이 자신의 시집을 읽게 한 개인적 문화적 교류의 방법 속에는 벌써 그의 정치적 외교적 의도가 들어나고 있다. 백석은 조선인들의 문학적 우월주의가 임진왜란과 같은 일본의 무력주의에 대한 정신적 보복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한문학적 교양으로 조선사신을 미리부터 놀라게 하겠다는 발상이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이것은 가령 朴趾源이 연행길에 오르면서 청나라의 굉걸한 선비를 애먹일 화제를 생각해 냈던 것과 똑같은 외교적 발상이었다고 생각된다.[참고: 18세기 연행사의 사고와 자각].

한편 여기서는 자기문학에 대한 자각적 실상이 싹트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박지원이 자국의 새로운 천문학적 지식체계로 청나라의 굉걸한 선비들의 중화주의에 도전했듯이, 백석은 조

선 사신들의 한문학적 우월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한편으로 한시문학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함으로써 이에 도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시의 창화를 거부함으로써 이에 도전하였다. 역대 조선 통신사들의 필담에는 한시의 창화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조선 사신들의 창화 제의에 백석은 <<강관필담>>에서 냉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백석은 반문하기를 우리의 교류가 10년동안 글을 읽은 것과 같으니, 따로 또 시를 읊을 것이 있겠느냐고 했다. 이들 사이에는 그 개인적 교류에서 벌써 한시의 창화가 없어도 좋았다. 이 부분의 화제가 백석전집에 실린 <<강관필담>>에는 강그리 빠져 있는데 한시문학이 필수였던 이들 유학자들 사이의 교류에서 중화주의가 이처럼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 필담에 이어지는 말은 아니지만, 백석은 여러 곳에서 오히려 일본 전통 和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시문학을 뽑내는 조선문인들이 일본의 한시문학의 빈약함을 경멸하는 것은 그들이 일본 和歌를 지을 수 없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백석의 國學的 자각이 실상으로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조선 사신들의 한문학적 우월주의가 여기에서 허상을 들어내고 있지만, 이점은 오히려 동시대의 연행사들의 실학적 자각에서 보충되고 있었다고 보인다.

Abstract

An Aspect of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in the 18th Century
 – Centering on *Kangkwan P'ildam* –

This paper is written to take a look at the aspects of the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in the 18th century through the *KangKwan P'ildam* (=conversation by writings) in which the interchanges between T'ongshinsa (=dispatched envoy to Japan from Chosun) and Japanese are written down.

This paper is originally planned as a part of the series of “Experiences in Japan and the Aspects of Korea-Japan Cultural Exchange in the 18th Century,” the contents of this paper consist of seven parts including the preface and the conclusion.

In the first part of the main discourse, I deal with the structure and the contents of the book, comparing the two versions respectively, one written by Cho Tae Oek, a senior envoy, the other written by Lim Su Kan, a junior envoy. I set forth the questions of study after looking into the contents of the preface which has being existed only in Lim's version.

Secondly, to see the aspects of the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18th century, I observed the polit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diplomacy as well as the personality of the two leading Japanese diplomat, Aray Haksekye (新井白石) and Amano Mori Hoshu (雨森芳洲)

In the third chapter, I deal with the sense toward the western world of the diplomats of both nations and the crisis of breaking down the Chinese-Centurialism in the East-Asia. Especially, I note the fact that with the increase of the interests in the West, those in Chinese culture once having a great influence on the East-Asia had decreased in the beginning of the 18th century.

In the fourth one, the mutual concern for the history of both countries' cultural exchange is mainly dealt. Finally, I have noted that Chosun T'ongshinsas' sense of the world was essentially more limited than that of their contemporary Yeonhangsas(=envoy to Chinese from Chosun). The reason is that T'ongshinsas' limitation was such, compared with the fact that Yeonhangsas had had the direct contacts with the western people and that their sense of the practical science (實學) had been more drastic.

As a conclusion, I show the fact that the virtual and real image of the literary nationalism shows itself what it is in the long run.

